

지속 가능한 ESG경영 본격화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공모 의상 재활용 등 가산점·전 직원 플로깅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지속 가능한 ESG경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13일 재단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ESG경영을 선언, 올해부터 실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전통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ESG경영 가산점을 도입했다.

가산점에는 의상 재활용, 소외계층 객석 나눔, 지역 봉사단 연계,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등이 있다.

또한,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로깅, 체험활동, 일손 돕기 등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손수건 및 텀블러를 사용해 일회용품 줄이고, 태블릿PC 및 이면지를 활용해 종이를 절약한다.

재단 관계자는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중이점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 또는 머그잔을 활용하는데, 외부순남들이 올 때 처음에는 불편하고 번거로웠다"면서 "하지만 이런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의회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친구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지속 가능한 ESG경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임직원 텀블러 사용 모습)

만날 때도 텀블러를 활용하는 등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때문에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ESG경영 추진전략 수립으로, 임직원 86명 대상 내부만족도에서 90.8점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민과 동반성장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춘향제전위,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 서류 접수 시작

춘향제전위위원회는 오는 5월 남원춘향제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전위는 기존 공식 명칭이었던 전국춘향선발대회를 올해부터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변경하고 참가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춘향선발대회는 매년 남원춘향제에서 개최하는 미인선발대회로, 지난 1950년부터 시작해 '춘향대'이라는 춘향의 가치를 알리고, 한국의 전통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박지영, 오정해, 윤순하, 이다혜 등이 춘향 선발대회 출신이다.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적과 지역에 상관없이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응모원서를 오는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은 서류 심사와 1, 2차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 30명을 선발해 10박 11일의 합숙을 거쳐 제94회 남원춘향제 개최 기간 중인 5월 15일 최종 본선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선에서는 춘향 진, 산, 미, 정, 숙, 현 6인과 글로벌 뮤즈상 2인, 우정상 1인을 선발하게 되며, 상금과 함께 남원시 홍보대사 자격이 주어지며, 응모원서 등 자세한 사항은 춘향제 홈페이지 및 JTV전주방송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spring@jtv.co.kr)과 전화(063-250-5394)로도 문의할 수 있다.

대회 관계자는 "춘향선발대회는 남원춘향제와 함께 K컬처를 통해 글로벌 축제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23일 '한·일 교류음악회'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2024 한·일 교류음악회를 오는 23일 오후 3시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을 공동주최하는 재)민중음악협회는 예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음악문화단체로, 한국을 포함해 100개국 이상의 국가와 폭넓게 음악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과 재)민중음악협회가 주최한 한·일 청년 전통음악가의 만남 이후 1년 만에 한국에서 양국의

음악가들이 다시 만나는 뜻깊은 자리이다.

재)민중음악협회는 한국을 포함해 100개국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의 음악가를 일본에 초빙해 연주 사업, 음악가 해외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음악박물관 사업, 음악보급 사업 등을 폭넓게 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20회 도쿄국제지휘자콩쿠르도 개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교류음악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음악, 창작음악과 더불어 양국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며, 지난해 도쿄공연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양국의 협연곡인 '이리랑 연곡'과 '매화 한 송이'도 다시 한국에서 연주한다. 특히 한국의 가요, 대금과 일본의 고토, 사쿠하치와 같이 비슷하지만, 다른 역사를 가진 양국 악기들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조화에 의미를 더한다.

2024 한·일 교류음악회는 서울 국립국악원(3월 20일), 국립민속국악원(3월 23일), 국립부산국악원(3월 26일)까지 3차례 이어지며, 오는 23일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또는 전화(063-620-2329)가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서포터즈 모집

4월 9일까지 접수... 신규 가입 시 회원 카드 발급·서포터즈 패키지 증정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비는 5만 원이다.

전주국제영화제 서포터즈는 영화제의 다양한 예매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유료 회원 제도로, 최초 가입 시 5만 원 이상의 가입비를 납부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매 실적 기준 3년 연속 영화제 불참 시에는 일반회원으로 전환된다.

신규 서포터즈로 가입한 회원에게는 모바일 및 실물 회원 카드가 발급된다.

기본 혜택으로는 영화제 상영작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티켓 예매 시 1매당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굿즈샵에서 기념품 구매 시 10% 할인된다. 이 밖에도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간행물 '매거진'을 무료로 증정받을 수 있다.

가입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jonufest.kr)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063-280-7962)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열 두 번째 영화 소풍길 함께해요"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브랜드 팝업 스토어 선착순 모집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2024. 6. 5.~6. 9.)가 열 두 번째 영화 소풍길을 함께할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모집한다.

초록빛 자연, 보랏빛 낭만으로 가득한 6월의 영화 축제 '무주산골영화제'가 2024년 열 두 번째 영화 소풍길을 함께할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오늘부터 모집한다.

자연 친화적이고 낭만 가득한 '무주산골영화제'의 팝업 스토어 참여를 원하는 브랜드는 3월 13일부터 4월 21까지 신청 가능하며, 3월 31일까지 신청한 브랜드는 20%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브랜드는 영화제 사무국 홍보마케팅팀(mujufilmfest@naver.com)으로 브랜드 소개서와 팝업 스토어 운영안을 자유양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브랜드는 올해 영화제 기간 내 무주산골영화제 메인 유료 행사장인 무주드나무운동장 내 협의된 공간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다. 모집은 접수 우선순위로 진행되며 영화제 콘셉트 및 동일 업종 중복 여부에 따라 참여가 어렵거나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할 문



화 파트너로서의 공식 후원을 원하는 기업 파트너도 함께 모집중이다. 후원 방식은 현금 또는 현물 후원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지정 기부로도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 파트너에게는 올해 영화제 기간 내 기업 광고 영상 노출 및 공식 홍보물을 통한 광고, CI 노출,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한 브랜드 노출 및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방식의 기업 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관련된 사항은 영화제 사무국(063-245-6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초여름을 대표하는 영화 축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시민기자단 '전통아띠 2기'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2일까지 시민기자단 '전통아띠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3일 전당에 따르면 '전통아띠'는 전문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통문화 주제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한다.

시민기자단은 서류평가를 거쳐 총 10명을 최종 선발한다. 위촉장과 함께 전당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체험, 교육 등에 우선 초청되며, 각종 홍보 활동의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소정의 활동비와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다이얼, 명함 등의 물품도 지급된다. 특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한 기자에게는 연말 시상을 통해 특전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전당 누리집에 첨부된 지원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